16-5 (통권 643호) 2016. 2. 22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2016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제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기대치 급락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2016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제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기대치 급락

Executive Summary ····· i

1. 한반도 평화지수: 2015년 4/4분기 실적 및 2016년 1/4분기 전망 ··· 1

2. 주요 특징 분석 : 항목별 및 정량·정성 평가 ····· 2

3. 시사점 ····· 6

Executive Summary

<요 약>

■ 2016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제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기대치 급락

(종합 평가) 2015년 4/4분기 평화지수와 2016년 1/4분기 기대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로 4/4분기 평화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11.0p나 하락한 36.0을 기록했고, 남북관계는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서 8.25 합의 이전 수준의 '긴장 고조 상태'로 되돌아갔다. 2016년 1/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29.3p나 급락한 23.8을 기록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인 2012년 2/4분기(24.1)보다 더 낮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요 특징) 2015년 4/4분기 평화지수와 2016년 1/4분기 기대지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지수는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로 나눠지는데, 4/4분기의 **전문가평가지수는 급락한 반면,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상승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평가지수는** 남북 당국간 회담 결렬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으로 **지난 분기 대비 32.2p나 급락해 조사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2/4분기(10.9)와 4/4분기(15.5)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수준이다. 반면에 정량분석지수는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과 사회문화 부문의 민간 교류 증가 등으로 지난 분기 대비 10.2p 상승한 57.0을 기록했다.

둘째, 2016년 1/4분기 기대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29.3p 급락한 23.8을 기록했는데,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큰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즉, 북한의 기습적인 제4차 핵실험 실시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계획 통보, 한미일의 강력한 대북 제재 움직임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 예상, 2016년 상반기에 예정된 남북한의 주요 정치·군사 일정, 그리고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통전부장 임명 등으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셋째,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성향 구분 없이 모두 부정적으로 급반전되었다. 이는 8.25 합의에도 불구하고 100여일 만에 개최된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였고,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된 데 따른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로 남북관계 불안 의식을 해소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3월의 한미연합훈련과 4월 총선, 5월의 북한 당대회 등 2016년 상반기 남북한의 주요 정치·군사적 일정과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진입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 지속적인 당국간 회담 제의로 북핵 및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남북 대화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했듯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와는 별도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 재개와 민간 교류 등으로 남북 양자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북 정책의 유연성 발휘가 필요하다. 남과 북의 '强 대 强' 조치는 북한의 태도 변화는 물론, 우리 경제의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긴장 고조 국면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유연성을 발휘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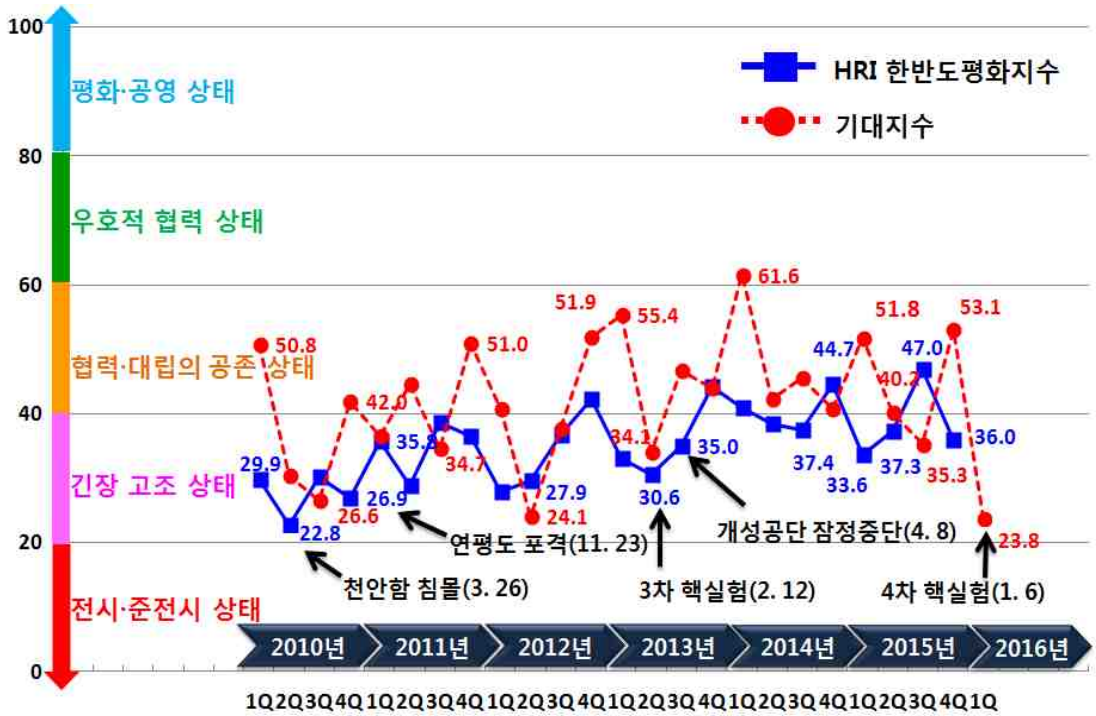
1. 한반도 평화지수, 2015년 4/4분기 실적 및 2016년 1/4분기 전망[1)]

○ (종합) 2015년 4/4분기 실적지수 및 2016년 1/4분기 기대지수는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평화지수) 2015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11.0p나 하락한 36.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로 재진입
  - 한반도 평화지수는 교류지수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의 급락으로 대폭 하락하였음
  - 이로써 남북관계는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서 8.25 합의 이전 수준의 '긴장 고조 상태'로 회귀하였음

- (기대지수) 2016년 1/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29.3p 급락한 23.8을 기록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인 2012년 2/4분기 수준(24.1)보다 더 낮아짐으로써 조사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기대지수 추이 >



1)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를 위해 2016년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남북문제 관련 연구원, 교수,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2. 주요 특징 분석 : 항목별 및 정량·정성 평가

○ (항목별 평가) 실적에 기초한 정량지표인 객관적 지수는 상승한 반면, 전문가 설문에 의한 주관적 지수는 크게 하락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임

- 2015년 4/4분기의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10.2p나 크게 상승한 57.0을 기록함
  - 이는 개성공단의 남북경협과 이산가족 상봉(10. 20~26)으로 인한 인적 왕래 등의 증가로 교류지수가 15.4p 큰 폭 상승한 데 따른 것임

- 반면에 주관적 지표인 4/4분기 전문가평가지수와 2016년 1/4분기 기대지수는 모두 조사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음
  - 전문가평가지수는 32.2p나 하락한 15.0을 기록함으로써 2010년 2/4분기(10.9)와 4/4분기(15.5)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수준으로 떨어짐
  - 이는 남북 당국간 회담 결렬,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대남 비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사망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1/4분기 기대지수는 29.3p나 대폭 하락한 23.8을 기록했는데,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진 것을 의미함
  - 이는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 실시와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엇갈린 대응,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통보와 3월의 한미연합 훈련 예정 등의 불안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 HRI 한반도 평화지수 구성 항목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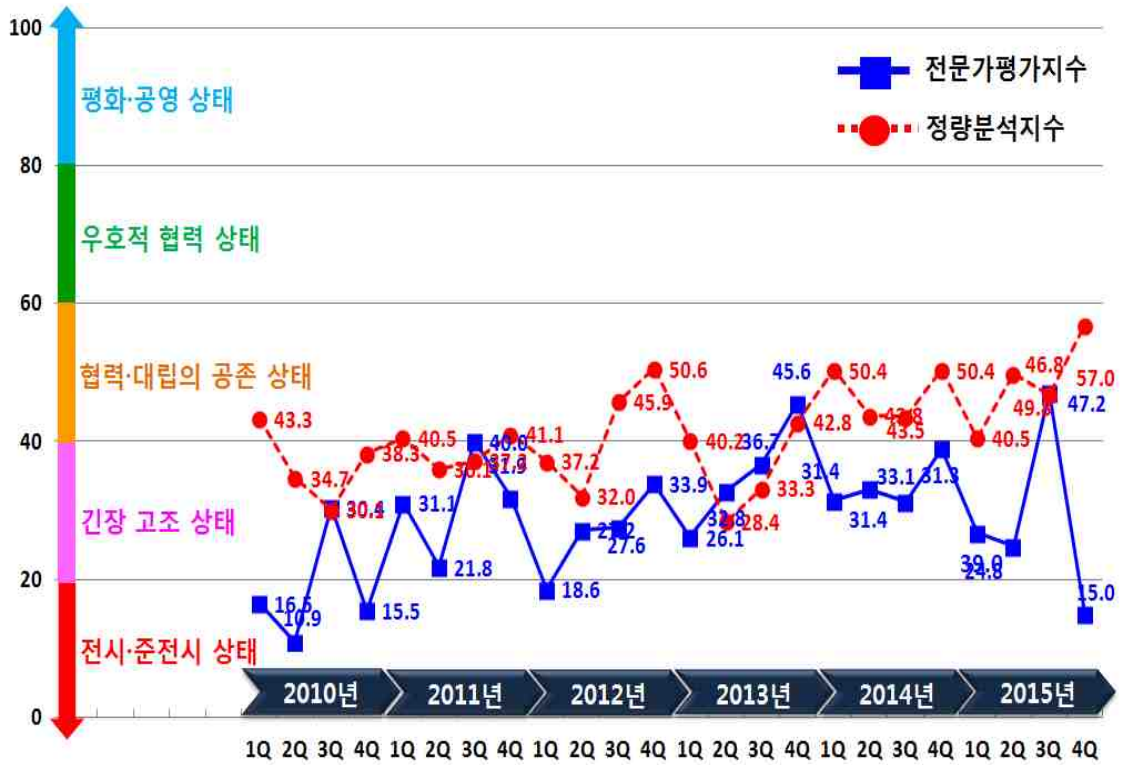
항목 / 시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기대지수
'15. 4분기	36.0 (▽11.0)	15.0 (▽32.2)	57.0 (▲10.2)	54.0 (▲4.9)	60.0 (▲15.4)	23.8 (▽29.3)
'15. 3분기	47.0 (▲9.7)	47.2 (▲22.4)	46.8 (▽3.0)	49.1 (▲0.2)	44.6 (▽6.2)	53.1 (▲17.8)
'15. 2분기	37.3 (▲3.7)	24.8 (▽1.9)	49.8 (▲9.3)	48.9 (▲3.2)	50.8 (▲15.4)	35.3 (▽4.9)
'15. 1분기	33.6 (▽11.1)	26.7 (▽12.3)	40.5 (▽9.9)	45.7 (▽1.2)	35.4 (▽18.5)	40.2 (▽11.6)
'14. 4분기	44.7 (▲7.3)	39.0 (▲7.7)	50.4 (▲6.8)	46.9 (▲0.3)	53.8 (▲13.1)	51.8 (▲11.1)
'14. 3분기	37.4 (▽1.0)	31.3 (▽1.8)	43.5 (▽0.3)	46.3 (▽0.5)	40.8 (0.0)	40.7 (▽4.8)
'14. 2분기	38.4 (▽2.4)	33.1 (▲1.7)	43.8 (▽6.6)	46.8 (▽5.5)	40.8 (▽7.7)	45.5 (▲3.2)
'14. 1분기	40.9 (▽3.3)	31.4 (▽14.2)	50.4 (▲7.6)	52.3 (▲5.2)	48.5 (▲10.0)	42.3 (▽19.3)

○ (세부 항목별 실적 평가) 8.25 남북고위급 합의 도출로 전문가평가지수는 큰 폭 상승했으나,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하락

- **전문가평가지수 (2015년 3/4분기 : 47.2 → 4/4분기 : 15.0)** : 총 184명의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이전 분기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4/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32.2p나 하락한 15.0을 기록하면서 남북관계는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서 '긴장 고조 상태'로 회귀함
  - 이는 10월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회담의 결렬과 SLBM 시험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임

- **정량분석지수 (2015년 3/4분기 : 46.8 → 4/4분기 : 57.0)** : 4/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10.2p 상승한 57.0을 기록
  - 이는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 모두 상승한 데 따른 것임

<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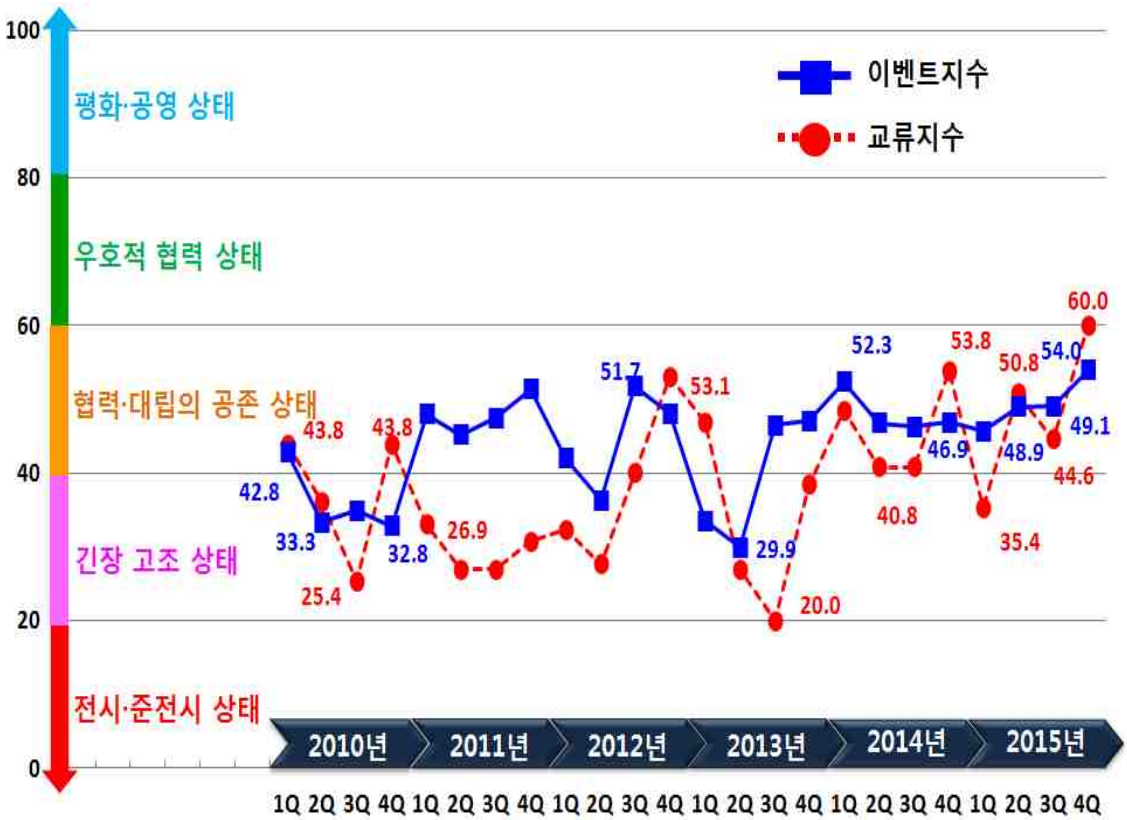


○ (정량 평가) 2015년 4/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가 모두 상승하여 지난 분기 대비 10.2p 상승한 57.0을 기록

- **이벤트지수(2015년 3/4분기 : 49.1 → 4/4분기 : 54.0)** : 지난 분기에 비해 4.9p 소폭 상승하였음
  - 이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25 합의 이행에 대한 기대감 상존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하여 북한의 군사 도발이 없었던 점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교류지수(2015년 3/4분기 : 44.6 → 4/4분기 : 60.0)** : 전기 대비 15.4p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이는 남북교역과 개성공단 사업(3/4분기 대비 +10.2%), 이산가족 상봉과 사회문화 교류 접촉 등의 증가와 이로 인한 방북 인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정량분석지수 중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 (정성 평가)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급반전

- 남북관계 전문가 184명에 대한 2015년 4/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중도-진보 성향 모두 대폭 하락세로 급반전되었음
  - 이는 8.25 합의에도 불구, 100여일 만에 개최된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의 입장 차이 재확인과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 장기 경색국면이 지속된 데 따른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1/4분기 기대지수는 29.3p 대폭 하락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는 매우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
  - 이는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 실시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계획 통보, 한미일의 강력한 대북 제재 움직임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 우려 등의 불안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 여기에다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통전부장 임명, 3월의 한미 연합 훈련과 4월 총선, 5월의 북한 당대회 등의 남북한 주요 정치·군사 일정 예정 등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및 기대지수 추이 >

성향 / 시기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종 합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 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 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 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 지수
'15. 4분기	18.8 (▽33.3)	25.7 (▽29.8)	16.3 (▽32.1)	23.8 (▽30.8)	15.2 (▽30.9)	21.4 (▽27.3)	15.0 (▽32.2)	23.8 (▽29.3)
'15. 3분기	52.1 (▲24.8)	55.5 (▲16.1)	48.4 (▲22.8)	54.6 (▲18.4)	46.1 (▲21.1)	48.7 (▲18.5)	47.2 (▲22.4)	53.1 (▲17.8)
'15. 2분기	27.3 (▽4.5)	39.4 (▽5.6)	25.6 (▽1.7)	36.2 (▽8.9)	25.0 (▲0.4)	30.2 (▽3.1)	24.8 (▽1.9)	35.3 (▽4.9)
'15. 1분기	31.8 (▽7.2)	45.0 (▽8.9)	27.3 (▽12.2)	43.2 (▽4.1)	24.6 (▽14.8)	33.3 (▽22.1)	26.7 (▽12.3)	40.2 (▽11.6)
'14. 4분기	39.0 (▲2.4)	53.9 (▲7.7)	39.5 (▲5.2)	47.3 (▲5.2)	39.4 (▲15.0)	55.4 (▲20.0)	39.0 (▲7.7)	51.8 (▲11.1)
'14. 3분기	36.6 (▲4.0)	46.2 (▲1.1)	34.3 (▽1.4)	42.1 (▽4.3)	24.4 (▽7.1)	33.4 (▽11.0)	31.3 (▽1.8)	40.7 (▽4.8)
'14. 2분기	32.6 (▲1.5)	45.1 (▽0.9)	35.7 (▲4.6)	46.4 (▲3.4)	31.5 (▲5.2)	44.4 (▲3.2)	33.1 (▲1.7)	45.5 (▲3.2)
'14. 1분기	31.1 (▽10.8)	46.0 (▽12.2)	31.1 (▽14.9)	43.0 (▽20.1)	26.3 (▽21.2)	41.2 (▽21.4)	31.4 (▽14.2)	42.3 (▽19.3)

3. 시사점

- **첫째, 올 상반기에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로 남북관계 불안 의식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 객관적 지표인 교류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는 조사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함
  - 통상적으로 기대지수는 평화지수보다 높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매우 큰 폭으로 역전되어 향후 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임 (2015년 3/4분기, 기대지수 53.1 > 평화지수 47.0 → 4/4분기, 기대지수 23.8 < 평화지수 36.0)
  - 특히 전문가들은 2016년 상반기 남북한의 주요 정치·군사 일정과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진입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

- **둘째, 지속적인 당국간 회담 제의로 북핵 및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남북 대화의 틀'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요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대화 재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
  - 특히 북핵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는 별도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 재개와 민간 교류 등으로 남북간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대북 정책의 유연성 발휘가 요구됨**
  - 남과 북의 '强 대 强' 조치는 북한의 태도 변화는 물론 우리 경제의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긴장 고조 국면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채널 가동 등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통일연구센터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와 경제·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2)]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	20이하

2)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부록 2> 이벤트지수

○ 이벤트 지수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회담과 사건 등을 총 11 단계로 구분하여, 평화 정도에 따라 0~100점의 가중치를 부과하여 계산함

- 총 11 단계는 가장 안전한 제1단계의 '양국 통합'(가중치 100점)에서 제6단계의 일상적인 '중립 상태'(同 50~59점),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제11단계의 '전면전쟁'(同 0~9점) 등의 단계로 구분

<부록 3>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 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회·문화·인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주 :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융자액의 합.